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6월 28일(주일) 제1301호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 노멀, THE NEXT?'

참가자 모집 오프라인 150명, 온라인 500명, 교회 유튜브 자유시청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Zoom)

7월 6일(1차), 9일(2차)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온누리 미래위원회에서 미래준비 세미나 '뉴 노멀, THE NEXT?' 일반 참가자를 6월 26일(금)부터 모집하고 있다. 1차, 2차 각각 오프라인 150명, 온라인(Zoom) 5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오프라인 참가자는 성인공동체와 대학청년부 리더십 중에서 공동체별로 2인 이내로 참가할 수 있다. 공동체 총무에게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참가자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배너'를 클릭한 다음 양식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세미나에 참가하지 않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면 된다.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 노멀, THE NEXT?'는 7월 6일(월)과 7월 9일(목)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장소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온라인은 Zoom을 활용한다.

7월 6일 열리는 1차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 노멀'에서는 '성도들이 느끼는 세상과 교회의 변화와 제언'을 듣는다. 윤현덕 장로(서빙고공동체)가 사회를 보고, 윤영각 장로(미래위원회 위원장), 주영재 집사(분당

B공동체, 물류회사 대표), 추혜림 집사(강남D공동체, 학원 운영), 최선 집사(부천공동체, 특수학교 교사), 김창석 집사(강동 온누리교회, 엘스톤 대표)가 패널로 출연한다. 경제, 교육, 신앙 등 분야별 상황, 신앙생활과 교회의 변화, 그 변화에 따른 각자의 노력, 새로운 미래 준비(제언)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한다.

7월 9일 열리는 2차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THE NEXT?'에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전문가, 선교 분야 전문가, 감염내과 전문의 등을 초청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진단 및 제언을 들을 예정이다.

황진숙 교수(강남공동체, 건국대 예술디자인)가 사회를 보고, 김준 장로(관악금천공동체, 서울대 조정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김의석 집사(강남A공동체, 분당서울대 감염내과), 김윤 박사(도곡공동체, SK텔레콤 CTO), 이현모 교수(침례신학대학교 선교학)가 패널로 출연한다.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 노멀, THE NEXT?'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누리교회 미래 대비를 위한 출발점이다. 지난 5월 11일과 18일 주간 실시한 순예배 간담회에 이

1차 토론주제: 뉴 노멀(성도가 느끼는 세상과 교회의 변화와 제언)

시간(분)	내 용
19:30-19:35(5분)	모두 인사(이재훈 목사)
19:35-19:45(10분)	순 감담회와 설문지 서베이 결과 설명(윤영각 장로)
19:45-21:25(100분)	〈사회자〉 윤현덕 장로(서빙고공동체, 선교본부 운영위원) 〈패널 토론자〉 · 윤영각 장로(미래위원회 위원장) · 주영재 집사(분당B공동체, 물류회사 대표) · 추혜림 집사(강남D공동체, 학원 운영) · 최선 집사(부천공동체, 특수학교 교사) · 김창석 집사(강동 온누리교회, (주)엘스톤 대표)
21:25-21:30(5분)	마무리(이재훈 목사)

2차 토론주제: The Next?(전문가가 보는 세상, 교회의 변화와 제언)

시간(분)	내 용
19:30-19:40(10분)	온누리 미래준비 개요: 조대식 장로(마포공동체, 미래준비위원회 TF팀장)
19:40-21:10(90분)	〈사회자〉 황진숙 교수(강남공동체 안수집사, 건국대 예술디자인) 〈패널 토론자: 4명〉 · 김윤 박사(도곡공동체, SK텔레콤 CTO; AI, 5G를 포함한 ICT기술 R&D 총괄) · 김의석 집사(강남A공동체, CMN 의료사업팀장,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 김준 장로(관악금천공동체,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조정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 이현모 교수(침례신학대학교 선교학, WMTC 선교훈련원장)
21:10-21:30(20분)	마무리(이재훈 목사)

어 교회가 성도들의 목소리를 경청 및 공유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과정이다.

문의: 02-3215-3234, 3232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 공동체 성경필사 '에스라 프로젝트' 시작!

국내외 온누리교회 공동체별 '성경 1권 필사' 프로젝트
공동체 소속 안 된 성도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7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 우리말성경, 필사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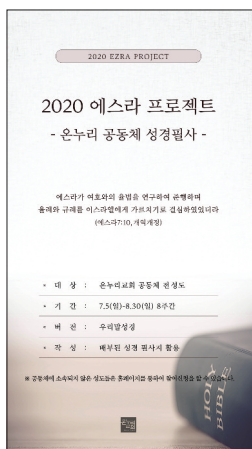
온누리교회가 '에스라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에스라 프로젝트는 온누리 공동체 성경필사 프로젝트이다.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및 해외비전교회 공동체별로 성경 1권(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1189장)을 필사한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참여한다.

공동체에 소속이 안 된 성도는 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에스라 프로젝트는 7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8주 동안 이어진다. 우리말성경을 이용해서 필사지에 공동체별로 성경 1권을 필사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교역자(전임, 파트)와 장로들은 각각 성경 1권 전체를 필사한다.

에스라 프로젝트 성경필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면 된다.

우선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성경(우리말성경)과 필사지, 펜을 준비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기도를 한 다음 필사할 본문을 3회 통독한다. 그리고 난 다음 필사지(추후 배포)에 말씀을 정자로 깨끗하게 써 내려가면 된다. 철자가 틀렸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한다(수정액 사용금지). 필사 본문 제일 위에 인덱스(본문 장, 절 표기)를 넣고, 가장 밑에 필사자 이름을 기입하면 된다. 완성된 성경필사는 창립기념주일(10월 4일)에 전시할 예정이다.



에스라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코로나19 사태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다. 둘째, 개인영성 관리와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다.

문의: 서빙고 02-3215-3744, 3263
양재 02-570-7356, 7918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정현주 기자

공동체 여름방학특강

7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

'공동체 여름방학특강'이 7월 3일(금)부터 9월 3일(목)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서 총 84개 강의가 개설된다.

서빙고 29개, 양재 30개, 부천 5개, 수원 4개, 대전 4개, 남양주 2개, 평택 1개, 인천 5개, 강동 3개, 양지 1개다. 여름방학특강 과목은 추후 공지된다. 여름방학특강은 공동체별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공동체 담당목회자가 여름방학특강 영상을 지정된 웹사이트(구글드라이브 etc)에 올리고, 성도들에게 url(인터넷 주소)을 공유해준다. 여름방학특강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해외 아카데미가 중단된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목양을 통한 공동체 훈련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의: 공동체 총무, 양육총무, 담당목사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가정, 세계관 선점의 장(場)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세계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과 부모이다.

개인이 태어난 가정의 환경과 부모의 세계관이 자녀의 선글라스렌즈에 강력한 바탕색을 칠하게 된다.

자녀들은 부모의

선글라스로 세상을 바라보듯이 부모와 형제들의 행동을 흉내 내며 스피치처럼 가정의 세계관을 받아들인다. 오늘날의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양한 세계관들이 경쟁하는 치열한 전쟁터이다. 인류로부터 영혼과 마음의 추종자들을 얻기 위해 싸우는 세계관의 대격돌지에서 가정은 자녀들의 세계관을 선점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는다.

가정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첫 사회기관이며 교회이다.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수행해야 한다. 가정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땅 끝까지 가서 전하라”는 그분의 지상명령도 이뤄야 한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게 신앙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보다 더 정성들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부모들이 강제로 주입한 신앙은 자녀들이 성장해 스스로의 신앙을 선택할 때 거부반응을 일으키며 버려진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이념이나 지식이 아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한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나 손가락이 아니라 부모의 등 뒤에서 그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간다. 부모와 자녀는 영적관계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매순간 자녀가 부모의 영적 거울임을, 물이 사람의 얼굴을 비춰주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비춰준다는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명심해야 한다.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은 미국 아이다호 주의 물몬교 가정에서 태어난 타라 웨스트 오버의 자서전적 이야기다. 그녀의 아버지는 학교 교육이 자녀를 망친다는 생각과 정부가 자신들을 위협하는 세력이라는 망상 때문에 자녀들의 학교 교육을 차단했다. 이 책은 편향된 종교적 배경의 부모가 자녀에게 미친 악영향과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책 〈충돌하는 세계관〉을 번역하고 저자를 만나기 위해 그의 사역단체인 ‘서밋 미니스트리(Summit Ministries)’에서 주최하는 세계관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 미국 중서

부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하는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교사, 홈스쿨링 하는 부모들이 참석했다.

세미나 동안 식사 때마다 그들의 자녀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 기억나는 사람은 콜로라도 주의 시골에 살면서 자녀들을 홈스쿨링하던 부부였다. 남편은 배관공으로 미국에서는 안정된 전문직이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일이 없는 시간에는 집에서 정해진 학습을 해나간다. 이들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짜인 교과과정과 교재를 주변의 기독교교로부터 제공받고, 신앙과 직업교육을 삶에 적용하는 세계관 교육을 실생활 속에서 부모로부터 받는다.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쯤이면 아버지의 조수로서 5~6년 이상의 경력으로 수습 배관공 자격을 부여받는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과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관과 그곳에서 살아갈 직업까지 가르치는 좋은 사례다.

몇 해 전부터 근무하는 학교에 세계관 강좌를 개설해 강의하고 있다. 수강 학생들의 종교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 가정 중 25~30%의 종교가 기독교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기독교인이라 답한 학생은 5%정도에 불과했다.

기독교 생활동안 신앙을 잃거나, 임시가 더 중요하니 대학입학까지 신앙의 의무를 면제받다가 필요성을 잃거나,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서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등 원인은 다양했다. 부모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하신 선점의 기회를 좋은 대학 입학이라는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놓쳐버린 것이다.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을 잘 지켜온 아이들도 대학에서 만난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적 교수나 선배의 말에, 또 세상풍조에 무너져 방황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신실한 신앙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은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돌이켜 반드시 신앙을 회복한다. 까닭에 각 가정은 하늘 아버지의 집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교회여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의 세계관 선점의 기회를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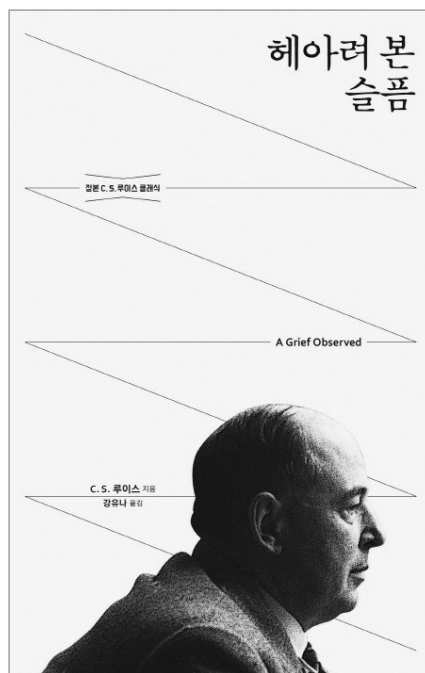
묵상: 나의 부모님의 세계관은 어떤 것이었으며,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하나씩)

충돌하는 세계관 유튜브 강의
<https://youtu.be/LOEMfEHoSFU>



책 읽어주는 목회자

우리의 절규에는 소망이 있다



헤아려 본 슬픔

C.S. 루이스 저 | 홍성사 | 11,000원

기다려 왔던 삶의 동반자, 매일 같이 기도해 오던 사랑의 대상을 만나게 된다면 그 감동이 얼마나 깊을까?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던 C.S.

루이스는 59세에 조이(Joy)라는 여성을 만났다. 그리고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그녀를 사랑했다. 경건하고도 즐거운 사랑, 낭만적이고도 현실적인 사랑, 인간에게 존재하는 갖가지 사랑의 양식으로 조이를 사랑했다.

당시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 〈예기치 못한 기쁨〉 등을 출판한 탁월한 문학가이자 신실한 기독교 작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열방에 고백하며 선포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때가 있었다. 사랑했던 배우자 조이가 암으로 인해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났다. 결혼한 지 4년이 채 흐르지 못한 시간이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황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다.”

절망, 낙심, 좌절, 비탄과 회개... 우리의 삶은 때로 주체할 수 없는 무거운 감정으로 인해 짓눌릴 때가 있다.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내면의 모든 것을 뒤흔든다. 곁으로는 어떤 변화가 없어 보여도 자신만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고통의 시간들은 삶의 모든

자리를 조각낸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영혼의 절망과 자괴감이 삶을 뒤덮고, 통제할 수 없는 어두움은 마음을 무너뜨린다.

이 책은 사랑하는 이를 상실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C.S. 루이스의 솔직한 감정과 생각이 담겼다. 긴 세월 기다림 끝에 사랑의 대상을 만났지만 먼저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고통스러운 심정을 거침없이 이야기한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운 듯 보일 때마다 실은 다음 번 고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라며 자신의 극단적인 원망까지도 서슴없이 내비친다. 그래서일까? 〈헤아려 본 슬픔〉의 첫 출간은 C.S. 루이스의 이름이 아닌 N.W. 클러크라는 가명으로 세상에 나왔다. 마치 익명의 방패를 앞세워 영혼의 모든 것을 토해내려는 것처럼 말이다

가감 없는 영혼의 토로 끝에 무엇이 남을까? 절망이라는 단어로 마침표가 찍힐까? 원망이라는 결승점에 다다를까? 아니면 어느 끝도 발견하지 못한 채 쉴 수 없는 전력질주로 삶을 소모하게 될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던 C.S. 루이스의 결론은 달랐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헤아려 본 슬픔’의 결론을 달랐다. 그는 책 끝자락에서 이렇게 고

백한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으나 그 미소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영원의 샘으로 돌아갔다.”

C.S. 루이스는 삶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을 만나 미소 짓는 조이를 발견한다. 자신의 상실감은 여전했고 슬픔과 괴로움은 그대로였지만, 그는 헤아려 본 슬픔의 끝에서 영원의 샘으로 초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신실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고통으로 절규하던 그의 시선 끝에는 드넓은 바다가 있었다. 삶의 깊은 골짜기는 우리로 하여금 처절하게 소리치게 한다. 비탄함으로, 절망으로, 고통으로. 그러나 괜찮다. 하나님과 함께 소리치는 영혼의 끝에는 바다가 있다. 영원한 생명의 보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오랜 기다림이 무너져버리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 우리의 절규에는 소망이 있다.



최종현 전도사
(SNS공동체)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마리아가 동정녀인 자신에게 아들이 잉태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후반부를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에 제목을 붙인다면 ‘세상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신과 같은 비천한 여종에게 임하여서 세상의 복된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시고, 세상을 역전시키고, 가치를 뒤집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언제나 겸손하시고, 자신을 낮추시며, 섬기시며, 희생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전에는 ‘위대함’이라는 단어와 ‘낮아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만해야 승리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야 성공한 것 같고,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비천한 일이고, 연약한 자들이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높으신 하나님은 낮아지고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출생에도 나타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타이밍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1~2절).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황제는 매우 유명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붙여진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정치를 매우 잘한 지도자입니다. 절대 권력을 누린 사람입니다. 세계사에서는 그가 다스렸던 41년을 ‘로마의 지배에 의한 평화’라고 부릅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질서 면에서 안정된 시대였습니다. 헬라문화를 보급해서 문화통일까지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탁월한 정치가에 의해서 로마제국이 확장되고 견고해지자 그 이후 로마 황제들은 그에게 붙여졌던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직책이나 직위처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일 때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매우 위대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네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이 빠르고 안전하게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길이 닦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위해 8만5천 킬로미터 정도의 길을 닦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이때 등장했습니다. 이 길을 통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헬라어가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곳에 보급됨으로써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이 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약과 더불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더욱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지배받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로마가 견고할수록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독립권은 상실되었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될 꿈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대였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더 깊이 갈망했습니다.

넷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철저한 행정과 법치로 인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도록 섬리되었습니다. 황제가 로마 전역에서 세금을 철저히 거두기 위해 호적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는 50년마다 재산이 원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희년법에 의해서 요셉의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등록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만삭이던 그때 아내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행정력과 법치력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왕, 베들레헴 구유에 누우시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당시 아우구스투스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의 왕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베들레헴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네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미 5:2).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벧’ (집)과 ‘레헴’ (빵), 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의 역사는 하늘의 왕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택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의 출생지로는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 성읍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작고 지저분한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같은 중심 도시를 택하지 않고 작고 지저분한 베들레헴을 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낭만적인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마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베다니, 벳바게 등 예루살렘을 돕는 여러 위성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필요한 제사용 동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동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반면 나사렛은 신도시였습니다. 일자리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목수였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건물과 집들을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당시 버림받은 성읍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슬픔의 성읍입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뱀엘에서 돌아오는 길에 죽습니다. 그래서 베나민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유아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두 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베들레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베들레헴이 선택을 받은 또 다른 이유는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다윗의 왕조가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후손이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히 통치할 왕이 태어난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을 방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동물사육장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빈방을 준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태어날 방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동물의 먹이통에 누우셨습니다.

하늘의 왕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뿐만 아니라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서 베들레헴의 구유에 오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유를 빌려서 누우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배에서 설교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늘의 왕으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를 부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구유를 택하여 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어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고후 8:9).

예수님이 가장 가난한 자리에 오심으로 예수님보다 가난한 이가 없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서면 부유한 자가 되기에 예수님은 모든 이의 위로자가 되시며, 모든 이의 아픔을 이해하시며,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자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의 가장 가난한 자의 자리에 오심으로 세상을 뒤집으신 것입니다. 부유한 자가 위대한 자고, 가난한 자가 비천한 자라는 이 세상의 등식을 깨뜨리고, 오히려 가난 속에서 참된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고, 스스로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그 지위는 위대할 수 없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다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클라이맥스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가장 버림받은 성읍 베들레헴에 계셨고,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인 구유에 누우셨고,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버림받은 목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이 또한 세상의 가치를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 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8절).

당시 목자들은 버림받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성읍 밖 들판에서 살며 양들과 함께 뒹굴고 잠을 자며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 성읍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도 않았고, 또 잘 살지도 못했던 사회에서 성읍 밖에서 양들과 뒹굴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14면에 계속)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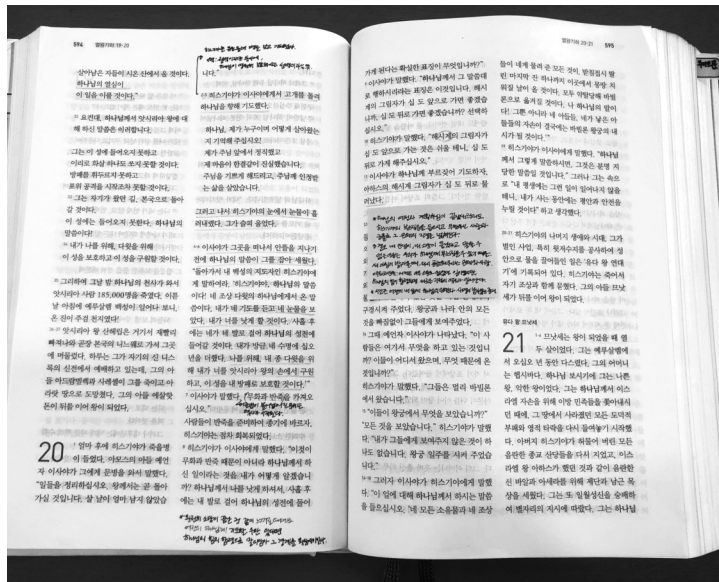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샘물을 만났다

교회에서 본 ‘Acts29’ 표어가 생각나서 사도행전 29장을 찾아보았다. 아무리 성경을 뒤적여도 사도행전 29장이 나오지 않았다. 나의 무지에 스스로 허탈한 웃음이 나올 정도로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올해 초 나는 인생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이라도 정말 살아 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무작정 성경책을 구입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아닌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성경통독을 시작하며 이왕 읽는 김에 제대로 성경을 알고자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도 신청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며 펼친 성경통독이 4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현재 마태복음을 넘기고 있다.

그럭저럭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온 나에게 여러 가지 고난들이 닥쳐왔다.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지 이해할 수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답도 얻지 못한 채 날마다 절망만 깊어갔다. 여러 책임감 속에 짓눌린 삶의 고통이 만성화되어 갔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빈틈없이 바쁘게 지내오던 주말에 스스로 고립되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성경을 6시간 내리 읽기도



정다인 자매는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를 수강하고, 매일 성경말씀을 읽고 있다.

했고, 틈만 나면 설교를 들었다. 그렇게 정말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내 인생에 역사하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여태껏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쉬지 않고 온갖 좋은 곳들을 찾아다녔고,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지만 이 모든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한순간에 깨달아졌다. 평생에 여기저기 헤매던 내 목마른 영혼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샘물을 만났다. 방향도 모른

채 사력을 다해 살다 결국 고갈된 나의 인생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한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여겼던 것들과 이별하며 철저히 혼자가 된 지금, 오히려 가장 완전한 만족을 느끼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시니 내 입술의 언어가 변하고 있다. 언어가 변하니 행동이 변하고, 더 가지려고 쫓고 살았던 내 손이 활

짝 펴지기 시작했다. 온통 내 생각만 하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핀다.

더불어 이제는 어떠한 불안과 절망적인 상황이 올 지라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안다. 여전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괜찮다. 지금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평생 동일하게 나와 함께하실 것을 믿는다. 나는 그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선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뻐할 뿐이다.

올해 내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하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남은 성경통독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충만해지기를 기도드린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마 6:33~34).

나의 첫 동역자가 되어 준 SNS공동체와 순에 감사하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 정다인 자매(SNS공동체)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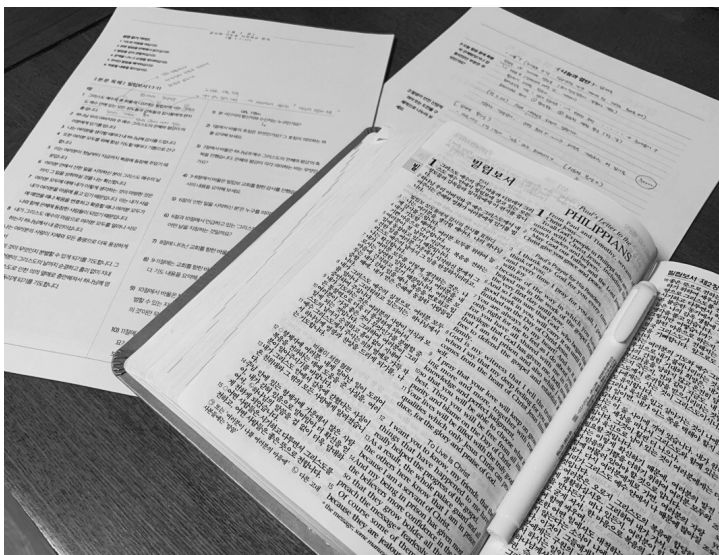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전능자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일인 듯하다.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써 점점 더 그분이 원하시는 사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은 크고 높은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한참 낮고, 매우 단편적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랑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귀하게 보심을 알기에 더욱더 사랑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지난 두 달 동안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빌립보서 과정을 수강했다. 빌립보서 말씀을 배우고 읽으면서 그 안에서 발견한 주님은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전능자’였다.

기쁨은 ‘기뻐하라’는 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거나 강요한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빌 4:4)고 명령하신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삶을 매순간 푸르른 초장을 거닐도록 하지는 않으신다. 내 삶이 푸르른 초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기뻐하라는 것이다.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를 수강하며 보게 된 영화 ‘바울’에서는 빌립보서의 저자 바울의 모습이 그려진다. 바울은 우는 사자처럼 종종 찾아오는 영적공격으로 인해 아픈고 차가



김유진 자매의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빌립보서 강 의 노트.

운 감옥 안에서 죄의식의 감정에 휩싸여 괴로워한다. 그러나 바울은 괴로운 중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자신의 기쁨을 거듭 표현하고,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를 권면한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옥중서신이 ‘주 안에서(엔크리스토) 기쁨의 서신’으로 변모할 수 있음을 보게 되었다. 내 앞에 닥쳐오는 어떤 환란과 고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빌립보서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본성은 소외되고 낮은 자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다. 그 옛날 인구를 계수할 때조차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던 여성 루디아를 유럽 최초의 교회를 개척하는 도움의 손길로 사용하신 사건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찬양하게 된다. 또한 성경 속 여성들의 삶과 그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더욱 집중하도록 한다. 자신의 거처를 기도의 집으로

내어준 루디아의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보다 더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평범한 루디아를 주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2천 년 전 바울과 루디아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는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의 치열한 속에서 다른 여러 모양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상황과 마주한다. 우리를 불안으로 몰아넣는 순간마다 온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고통을 재해석하며, 기쁨으로 인내를 배워가기를 원한다. 또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그 과정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은혜까지 넉넉히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 김유진 자매(요셉공동체)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해외비전교회 야치요 온누리교회

영적인 광야에서 경험한 기적!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야치요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요시하라 목사입니다.

야치요 온누리교회는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한 1호 일본 선교사 조성록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난해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역사 깊은 일본비전교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는 예배를 자제하며 4월부터 두 달 동안 온라인 영상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은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광야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경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첫째, 기도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어 성경통독팀에서 출산하여 40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세 번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음성 듣는 자세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간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의 기도제목을 교환하고 중보 기도하면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고 깊어졌습니다.

둘째, 연합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성도가



야치요 온누리교회 각 부활절 이벤트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했다.

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구제기금을 마련하고자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모두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었기에 헌금이 얼마나 가능할지 미지수였는데, 감사하게도 평상시 같으면 모으기 어려운 금액을 헌금해주셨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주님이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기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셋째, 주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4월 말에 한국인 성도 한 분의 시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부랴부랴 그 성도님의 남편이 한국으로 떠났는데, 일단 나가면 일본으로의 재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에 남

겨진 가족들의 절망과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이 소식을 듣고 주님의 손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6월 중순경,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강경했던 일본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가족이 일본에 남아있는 경우나 가족 장례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경우는 재입국을 인정한다는 인도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재입국이 허락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아직 주님을 믿지 않던 그 성도님의 남편이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교회에 나가봐야겠다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주님은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훈련을 가르쳐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영적인 광야라 할 수 있는 일본 땅에서 앞으로 야치요 온누리교회가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오아시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야치요 온누리교회)

공감소비운동 그 아름다운 현장

인천 WEB공동체-인천대학교 CCC 사랑방

“가장 큰 선물은 희망이었습니다”

공감소비운동을 통해 받은 감사를 나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사랑방’은 조선시대 모임과 사교의 공간이던 사랑방을 어원으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던 예수님의 제자와 전락을 본받아 같은 지붕 밑에서 형제자매들끼리 동고동락하며 관계 속에 인격을 다듬고, 형제애를 누리며, 제자로 훈련받는 장이요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를 세우신 김준곤 목사님께서 ‘사랑방 사역’을 제안하신 이후 CCC가 사역하고 있는 전국 각지의 캠퍼스에 사랑방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인천대학교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하는 학생들이 모인 인천대학교 CCC는 2개의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덴동산 사랑방’에는 6명의 형제가, ‘조약돌 사랑방’에는 6명의 자매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학교가 위치한 송도 주변에 머물러야 하기에 사랑방은 여러 곳을 전전해야 했고 불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인원이 많아 잘 수 있는 공간조차 부족했습니다. 냉난방비도 아까워서 겨울에는 모진 추위를 전기매트로 감당하고, 여름에는 선풍기로 버티다 못해 인근 대학의 CCC 동아리방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활비 일부를 기부한 선배들의 헌신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지난해 학교 인근의 아파트를 임대해서 이주했습니다. 입주 초반 열 명이 넘는 인원들이 사랑방에 머물렀습니다.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있어도 학교와 가까이 꿈에 그리던 사랑방에 거주할 수 있는 기쁨이 매우 컸습니다. 그 덕분에 사랑방공동체가 인천대학교 CCC의 복음화 사역을 전보다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인천대학교 CCC와 사랑방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 소식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전과 같이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계획했던 신입생 사역도 무산된 상황에서 사역모임과 캠퍼스 채플도 온라인으로 전환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끝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캠퍼스의 선교단체들은 사역을 이어갈 다음세대를 어떻게 찾고 키워야 할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숙제를 풀고 있습니다.

사랑방 역시 거주하는 지체들이 크게 줄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도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이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식재료비를 줄였습니다. 식사는 간단한 라면과 냉동음식 같은 인스턴트식품으로 대체했습니다. 휴지와 샴



공감소비운동에 참여한 WEB공동체 형제자매들.

푸, 린스 같은 생활용품 구입하는 것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어려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사랑방을 이어갈 다음세대를 어떻게 구하고, 사랑방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인천 온누리교회 WEB 대청공동체로부터 공감소비운동을 소개받고, 감사하게도 선정되었습니다. 저 또한 공감소비운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 사랑방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해서 형제자매들의 사랑방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수많은 물품을 구매하고 포장뿐만 아니라 곳곳을 돌며 전달까지

해야 했음에도 기쁨으로 섬겨준 MC들과 순장님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보내주신 선물을 받고 “행복하다”는 인천대학교 CCC 사랑방원들의 기쁨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공감소비운동을 통해 말하지 못한 어려움도 주님께서 아시고,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 직접 행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위해 모아준 따뜻한 사랑에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인천대학교 CCC 사랑방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가장 큰 선물은 희망이었습니다.

/ 박정우 형제(인천 WEB공동체)

떠나는 목회자의 인사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개척한 교회 섬기러 갑니다”

포항 보금자리교회 청빙 받아 떠나는 이기진 목사

2003년 대학청년부 목회자를 시작으로 18년 동안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을 섬긴 이기진 목사가 사임한다. 평생 교회개척에 헌신하다 하나님 품에 안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개척한 포항 보금자리교회 교역자로 청빙을 받았다.

이기진 목사는 “혈액암 투병 중에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를 돌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건강과 포항 보금자리교회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은 이기진 목사와 일문일답.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평생 교회개척에 헌신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목회자로서 평생 교회개척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없는 열악한 지역을 찾아다니시며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2013년 암으로 소천하시기 전까지 12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목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회자로 사는 것도 참 괜찮은 삶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목회자의 길을 가겠노라 결심했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처럼 배우고, 사역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와의 인연이 궁금합니다.

“강북 군자동에 있는 ‘새영광교회’에서 8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2003년 6월 1일자로 온누리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2003년 5월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을 만나려고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동기 목사님과 서빙고 온누리교회 커피숍에서 오랜만에

만나 자료를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우연히 하용조 목사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동기 목사님이 저를 하용조 목사님께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온누리교회와 하용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직접 뵈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력서를 한번 볼 수 있냐고 연락이 왔고 그 일을 계기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온누리교회는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Acts29비전이 선포되고, 온누리 인터넷 TV가 CGNTV로 바뀌면서 여러 방면으로 교회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교역자들이 더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에게도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온누리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섬기셨습니까?

“대학청년부 전임교역자로 들어왔는데 너무 바빴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또 견뎠는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목회자로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진정한 교역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까지는 대학청년부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러브소나타를 시작할 때 일본에 파견되어 오사카, 동경, 삿포로, 센다이 러브소나타를 개척하고 준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2008년 국내로 돌아와 Acts29본부장으로 1년 섬겼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남양주 온누리교회 담임목회자로 섬겼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시카고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는 양재 온누리교회 성인공동체를 섬겼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이 무엇이고, 가장 고마운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사역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본에서 러브소나타를 개척하고 섬긴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비전만 가지고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일본 교회 목회자들에게 러브소나타 홍보물을 전달하면서 취지를 설명하고, 일본 교회가 연합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러브소나타 실행위원회를 조직해가면서 백지에 러브소나타라는 그림을 그렸던 사역이 가장 보람 있었습니다. 당시 하용조 목사님께서 안식년으로 일본에 계셨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조언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가장 고맙고 기억에 납니다.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고, 선한 영향을 많이 받은 동역자는 두 분의 담임목사님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과 10년, 이재훈 목사님과 8년을 함께 사역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비전의 우산이 참 크신 분이셨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서 무엇을 해도 수용이 되었습니다. 때로 실수를 해도 열심히 하다가 저지른 실수는 용납해주시는 넓고 큰 리더셨습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께서는 촘촘하고, 공동체를 조직적으로 세워나가는 리더십니다. 도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께 따뜻한 목양과 공동체 전체를 엮어 가는 리더십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니다.”

청빙 받은 포항 보금자리교회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혈액암 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항암치료를 받고 다행히 치료가 잘 났습니다. 올해 1월에 치료가 잘 났다는 진단을 받았고, 지난 5월 1차 정기검사에서도 특별한 재발의 여지가 없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배려해 준 덕분에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몸이 아프고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가슴 깊이 느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섬길 수 있어 너무나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에서 18년 동안 여러 사역들을 섬겼는데 그 하나하나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목회자로서 후반부 사역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 지를 기도 하던 중에 포항 보금자리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암으로 투병하시다 소천 하셨는데 그때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성도가 10여 명 정도 밖에 안 되는 작은 미자립 교회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교회가 작고 어려우니까 부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담임목회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포항 보금자리교회는 제 마음 한편에 늘 기도제목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긴 교회를 어머니와 함께 섬기고 기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청빙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제목을 나눠주십시오.

“이제 저는 시골로 내려가 새로운 목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추스르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할 것입니다. 저의 건강이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포항 보금자리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잊지 않고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38년 외교관 생활보다 섬김의 10년이 더 멋진 인생”

국제 개발 · 구호 NGO ‘더멋진세상’ 김광동 대표

인생의 퍼즐은 이렇게 맞춰진다. 1973년 외무고시 7회로 합격했고 외교관으로서 첫 임지는 당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었다. 80년엔 중견 외교관 훈련기관인 프랑스 국제행정대학원(IIAP)에 유학했다. 제네바참사관, 초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사 등을 거쳐 브라질대사를 역임했다. 프랑스어권 유럽과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외교관으로 일했다. 훗날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에서 국제 개발·구호를 담당하는 비정부기구(NGO)의 대표가 되고 보니 오랜 기간 하나의 목적으로 연단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

국제NGO 더멋진세상의 김광동(72) 대표 이야기다. 그를 지난 11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서울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 장로인 김 대표는 35년간 외교관으로 봉직했다. 노무현정부 말기 브라질대사를 끝으로 조기 퇴직했는데, 2010년 하용조 목사의 당부로 사무실 하나 없이 더멋진세상을 시작했다. 지금은 해외 24개국 27개 마을에서 60여 명의 국내외 스태프와 함께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고 있다. 김 대표는 “2015년 홍콩총영사 재임용까지 총 38년의 외교관 생활보다 무보수 NGO 대표로서 10년의 섬김이 훨씬 더 값지다”고 말했다.

-외교관 출신으로 NGO 대표가 된 사연이 궁금하다.

“2007년 제네바대사에 내정됐다가 웃을 뻔했다.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늦은 나이인 40대 중반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해외 공관에서 성경공부와 기도모임을 계속 갖는 등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참 힘들었다. 기도원에 들어가 묵상하는 와중에 ‘너는 그동안 너와 네 가족 그리고 기껏 한국을 위해 일한 것 아니냐’는 반성이 생겼다. ‘이제부터는 너 말고 남, 남의 나라와 다른 민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라’는 음성이 들렸다. 이후 하 목사님의 당부로 NGO를 시작하게 됐다.”

2009년 신병 치료차 일본 도쿄에 있던 하 목사가 김 대표를 불렀다. 수척해진 하 목사는 “장로님, 2010년이면 온누리교회 창립 25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 많은 걸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세상을 위해 한 게 없어 부끄럽습니다. 장로님이 인종 종교 이념 지역을 뛰어넘어 지구촌에서 재난을 당하고 고통 받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을 섬기는 NGO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했다.

-뭐라고 답하셨나.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였다. 외교 공무원 출신이라 NGO를 잘 모르고 돈도 없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지만, 하 목사님 말씀은 이랬다. ‘장로님, 하나님 일은 돈이나 사람을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돈도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해주세요.’ ‘예’라고 답하고 귀국했지만, 외교부 사단법인 등록부터 쉽지 않았다. 통장 잔고 4000만원과 사무실, 직원이 필요했다. 교회와 주변의 도움을 받아 2010년 12월 등록했다. 곧바로 동일본 대지진 사태가 벌어져 봉사자를 모집해 긴급 구호를 떠났다. 부서진 건물에서 슬리핑백을 펴고 자면서 재해 구호를 위해 식량을 나누고 부상자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더멋진세상은 마을 개발을 하는데.

“지구상 가장 열악한 나라의 가장 열악한 마을에 들어간다. 마을을 입양한다고 보면 된다. 3000~5000명 규모 마을을 입양해 통전적(Wholistic) 선교를 하는 것이다. 처음에 프랑스어를 쓰는 기니비사우에 갔는데, 사람들이 흠집에서 발가벗고 생활하는 데다 날이 더우니 집 안에 돼지 염소 닭 개가 다 같이 있었다. 집 밖의 구정물 샘에서도 사람이 동물과 같이 물을 축이고 하다 보니 수인성 질환으로 일찍 죽는다.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보면 서부 아프리카 영유아 사망률이 30%였다. 3명이 태어나면 1명이 5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것이다. 수인성 질환부터 없애기 위해 우물을 파야 했다. 기니비사우의 그 마을엔 지금 17개의 우물이 있다.

말라리아 퇴치와 예방접종 등 어린이 생명 살리기 운동도 한다. 목숨을 건진 아이들이 늘어나는데 갈 곳이 없으니 학교를 지어야 한다. 아이들이 늘어나니 식량이 부족해져 감자 옥수수 고구마 등 농업 개발을 돕게 된다. 배고픔 해결 뒤엔 생활수준 향상이 중요해 딸기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 특용작물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시장에 내다 팔아 소득수준 향상을 돕는 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마을을 돌보다 보면 그들이 묻는다. ‘한국에서 편하게 살지 왜 여기 와서 우리와 고생하냐고’ 그럴 때 ‘한강의 기적’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프리카보다 못살다가 하나님 축복으로 OECD 회원국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게 됐다고. 그럼 그들이 말한다.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나눠 달라요’ 이렇게 마을 중장기 프로젝트의 부수적 산물로 세운 교회가 10여 곳이다.”

-10년간 어떻게 월급 없이 일할 수 있었나.

“저는 연금이 나오니까(웃음).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NGO를 세우겠다고 서원한 그대로다. 외교관 동기이자 장로 동기인 김하중 전 중국대사가 ‘하나님의 대사’란 책을 썼는데, 저는 ‘그리스도의 자원봉사자’가 되고 싶다. 연간 후원액이 30억 원 규모인데, 한국 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등과 협력하는 매칭 사업이 많아 75억 원 규모의 사역을 하고 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NGO로 등록돼 있어



김광동 더멋진세상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외교가와 NGO를 넘나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석현 인턴기자. 우간다 부드리 마을에서 남수단 출신 난민들이 태극기를 새긴 가방을 매고 등교하고 있다. 부드리 마을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여성 스태프의 모습(위부터 아래로).

우간다 등지의 난민구호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서 청소 일을 하며 평생 모은 퇴직금 4000만원을 내놓고 돌아서는 아주머니, 자폐아 아들의 이름으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 달라며 1만 달러를 보내주신 어머니 등 더 멋진 세상을 꿈꾸는 선한 이웃들을 만날 수

있어 행복하다. 외교관 때는 몰랐던 더 멋진 세상에서 살고 있다.”

/ 우성규 기자(국민일보 미션라이프)

* 이 기사는 국민일보 미션라이프의 허락을 받아 전재했습니다.



기도는 더 간절했고, 눈물은 더 뜨거웠다!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마리아행전 '소망의 힘'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마리아행전 '소망의 힘'은 특별하고 더 특별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마리아들의 기도는 더 간절했고, 마리아들이 흘린 눈물은 더 뜨거웠다.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마리아행전 '소망의 힘'은 지난 6월 24일(수)부터 26일(금)까지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서 막 올랐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집회실황을 실시간으로 각 캠퍼스 본당에서 시청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졌다.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마리아행전 '소망의 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와 눈물로 장식됐다. 집회현장에서 만나는 마리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첫날 강의는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를 주제로 했다. 유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과 거룩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둘째 날 강의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70년 만에 돌이키소서'를 주제로 했다. 이 목사는 "소망을 품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면서 "불순종했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회복을 간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 마리아행전 '소망의 힘'

셋째 날에는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 목사는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 뿐"이라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이루신 줄 알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리아들의 고백과 다짐도 이어졌다. 이현미 성도(평택 온누리교회)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칭찬하며,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고, 최경미 권사(부천 온누리교

회)는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기억하고, 하루 하루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김대순 권사(강동 온누리교회)는 "소망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명화 권사(수원 온누리교회)는 "세상으로 향해 있던 시선을 돌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마리아행전 1.2.3 기도운동'이 오는 6월 30일(화)로 종료된다. 이제부터는 각자의 자리에서 2020년 마리아행전 '소망의 힘' 마지막 날(26일) 나눠준 기도책자를 보면서 중보기도하면 된다. 기도책자에는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기도, 교회, 정치, 경제, 가정, 교육, 다음 세대, 사회, 문화·미디어, 북한과 통일 등을 주제로 영역별 기도문이 적혀 있다.

/ 홍하영 기자, 김영선 기자

현장 인/터/뷰

“이제는 순수한 믿음으로”

“코로나19를 견디면서 기도의 자리가 너무 갑갑했습니다. 제 안에 쌓여가는 기도제 목들을 소리 내어 부르짖고 싶었습니다. 교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 북한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마리아들과 함께 소리 내어 기도할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껏 제가 하나님인 줄 알고 붙잡았던 잘못된 소망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 위의 헛된 소망을 바라보던 지난날을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 박은주 권사(서빙고 온누리교회)

“소망이자 기쁨 되시는 주님을”

“진정한 소망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났 습니다.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말씀을 들 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 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 았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사랑 이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 며 힘쓰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자 기쁨 되 시는 주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 신미연 성도(인천 온누리교회)

“화평케 하는 아내이자 엄마”

“첫날 말씀을 들으며 ‘화평케 하는 사람’을 목상했습니다. 다른 관계들을 챙기느라 가장 소중한 가족들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 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강 한 가정 안에서 화평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화평과 거룩함을 따 르며 지케나갈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 았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가장 먼저 화평케 하고 싶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며 섬기는 아 내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삶을 보이는 엄마가 되 겠습니다.”

/ 이나비 성도(대전 온누리교회)

“하늘의 소망을 소유한 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망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환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늘의 소망을 소유한 자로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교회, 이 나라와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이승희 집사(양재 온누리교회)



◆ 6월 24일 수요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유기성 목사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모든 비밀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그동안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여전히 소중한 그것 때문에 웃고 우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소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뜨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때문에 울고 웃는 것입니다. 소망은 엄청난 것입니다. 손왕원 목사님은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습니다. 그

가 처형당하지 않도록 아들 삼았습니다. 소망의 눈이 열리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화해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문제가 생겼을 때 화목하게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간질 하는 사람, 기분 나쁜 말만 알려주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원수가 아니라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테반에게 돌을 던지던 주동자였습니다. 성령께서 중보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스테반의 중보기도를 들은 사도 바울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도 안하고 사는 것을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을 믿게 될 때 바뀔 것입니

다. 거룩한 삶을 사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코로나19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는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 명령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이 할 테니까 너희는 나만 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은 오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화해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해하는 자입니다.

◆ 6월 25일 목요일

‘70년 만에 돌이키소서’

이재훈 담임목사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으로 살아가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레미야와 다니엘이 소망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두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을 보면 17절에서는 소망을 잃었다고 하는데, 21절에서는 소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잃어버린 소망은 무엇이고, 되찾은 소망이 무엇일까요? 사라져버렸다고 한 소망은 소원, 미래, 자녀들의 모습 같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고난은 이러한 소망을 사라지게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 소망

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찾은 소망은 어떠한 고난과 재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무화과나무에 아무 것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의 힘입니다.

다니엘 9장의 기도는 소망이 가득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왕권이 세 번 바뀌는 동안에도 고위관료로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1년째 되던 해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금식하며 배운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간구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가 위험할 때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특별한 기도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서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이키시겠다는 약속을 읽었습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더욱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기에 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특별한 기도입니다.

올해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년이 되면 북한이 변화할 것이라는 예언이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는 다니엘보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된다는 약속을 확인하고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까지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넣어 기도하면 됩니다. 다니엘 기도의 3분의 2는 회개입니다. 철저한 불순종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용서와 회복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이유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은 더 절망적으로 될 것입니다. 북한의 태도도 급변할 것입니다. 더 위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방력이 있고 우방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회복시켜주시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소망 가운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 6월 26일 금요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인호 목사

믿음은 두려움과 싸우며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회당장 아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집에서 죽어가는 딸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그 순간은 두려움과 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개인의 용기나 배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고, 외나무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다. 거친 풍랑 위를 걸어가고, 캄캄한 터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한 가지 다른 점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

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은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믿습니다. 만지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주인 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사랑하느냐, 신뢰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집으로 향하는 아이로의 마음이 다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

고 있던 여인이 길을 막았습니다. 자신의 병을 치료 받으려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아이로에게 이 시간은 천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멈춤의 시간에 아이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혈루병 여인이 믿음으로 치료받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발걸음이 멈춘 순간 딸이 죽었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아이로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멈춰서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이로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집으로 갔습

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이로의 죽은 딸에게 “달리다굴(소녀야 일어나라)”이라고 말씀하시며 딸을 살리셨습니다. 끝까지 믿었기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낙심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기까지는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받은 줄 알고 기뻐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의심합니다. 그것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구한 것을 받은 줄 알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주시길 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에게 봉사자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드라이브인 예배 6월 28일 종료

영상예배 및 온라인 개인영성관리 콘텐츠는 운영

지난 4월 12일 부활주일부터 시작된 드라이브인 예배가 12주 동안의 대장정을 마치고 6월 28일(주일) 종료된다. 양재동 현주차장(양재대로 12길 25)에서 진행된 드라이브인 예배는 자동차 안에서 주파수에 맞춰 설교를 듣는 예배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족하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안으로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드라이브인 예배를 섬긴 김진술

성도(요셉공동체)는 “감동의 연속이었던 드라이브인 예배가 끝나서 아쉽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상 예배는 계속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TV로 드린다. 토요일예배 1~3부, 일요일예배 1~7부, 새벽기도회(1부 오전 5시 20분, 2부 오전 6시 30분, 토요일 새벽기도회 없음)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다. 차세대, 대학청년부(홀리스타 포함), 외국어예배, 장애인예

배(사랑부) 주일예배도 영상으로 드린다. 생명의 삶(QT),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공동체 여름방학특강 등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한편 온라인 예약이 어색한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은 전화로도 예배당 예약을 할 수 있다.

서빙고: 02-3215-3220, 3263, 3661
양재: 02-570-7349, 7469, 7438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대전 온누리교회 '세종교육관' 오픈

젊은 부부들과 차세대 복음화를 위한 공간

대전 온누리교회가 '세종교육관'을 오픈한다. 대전 온누리교회 세종교육관 위치는 충청남도 세종시 대평동 한누리대로 2257 세종판타지타워 407호와 408호다.

286제곱미터(㎡, 86평)규모의 시설이다. 예배당과 차세대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중예배, 성인 및 차세대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직장

인사역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대전 온누리교회 세종교육관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부부들과 차세대 복음화를 위하여 개척한 공간이다.

문의: 042-825-3642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대학로 홀리스타 예배당 예배 재개

한성대 에듀센터, 월~금 오전 6시 30분

대학로 홀리스타 예배당 예배가 지난 6월 22일(월)부터 한성대 에듀센터(종로구 해와동 창경궁로254) 2층 본당에서 재개됐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에 진행된다.

홀리스타 예배는 도심에서 드리는 대학청년부의 새벽기도회다. 9개(양재 2부 새벽기도회, 강남, 광화문,

본당, 여의도, 서초, 대학로, 사당, 신촌) 홀리스타가 있는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예배당 주일예배 재개 이후에는 양재 2부 새벽기도회 예배당 예배를 드리거나, 영상예배('온누리교회 대학청년' 유튜브 채널 라이브)로 홀리스타를 이어가고 있었다.

/ 정현주 기자

故 김영길 장로 추모다큐 <그의 제자, 김영길>

CGNTV 6월 28일 방송

故 김영길 장로(한동대학교 초대 총장) 소천 1주기를 맞아 CGNTV가 추모다큐 <그의 제자, 김영길>을 방송한다. 6월 28일(오늘) 오전 10시 30분(재방송 6월 30일 오후 10시30분) CGNTV에서 방송된다.

추모다큐 <그의 제자, 김영길>에서는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자들에게 성실하게 가르쳤던故 김영길 장로의 삶을 조명한다. 김장로의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제자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 감동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故 김영길 장로는 온누리교회 1호 장로로 장립받고 7년된 성도는 떠나라는 하용조 목사의 권면에 따라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섬겼다.

/ 김영선 기자

NGO 더멋진세상 이사라 홍보대사 마스크 기증

네팔 끼이렐리 지역 HIV 감염아동 60명에게

NGO 더멋진세상 이사라 홍보대사(2014 미스코리아 미)가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네팔 끼이렐리 지역 HIV 감염아동 60명에게 마스크를 기증했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패션마스크 브랜드 '르마스카'를 통해 비말 방지용 마스크와 덴탈마스크의 대량생산을 계획하고 있고, 그 판매 수익의 일부를 NGO 더멋진세상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네팔은 최근 인도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를 잃고 대거 귀국하면서 감염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네팔 정부가 시행중인 통행제한 조치 등으로 식량이 부족해서 면역력이 약한 HIV 감염아동들의 건강관리에 비상 등이 켜진 상태다.

한편 NGO 더멋진세상은 네팔 끼이렐리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격리시설 거주민들에게 식량과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6월 세레자

■서빙고

김윤중 961001
김희영 791017
서혁 660531
오지선 821201
이윤정 450109
정현근 831216

입교

김상원 971023
김영숙 690320
김현규 841111
유원후 000608

■양재

박재수 720818

양용식 540523

유정선 730315

이희승 700422

■대학청년부

갈렐

정혜진 810812

길

김진민 880506

여호수아

구분하 880228

이지연 830506

입교

김지원 880727

박선영 871005

유준 890517

이환희 910123

허브

김경주 960918

배희재 980218

입교

권기윤 200627

CH PLUS

서한나 921012

J4U

권은지 870813

권종호 880418

입교

노희국 910815

Pole2

김인혜 980131

임애리 960908

SNS

소은설 930420

이경수 791228

이규연 920221

이태영 911014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에서 사천 사촌교회에 승합차를 기증했다(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사촌교회 이종민 목사).

서빙고 농어촌선교팀

경남 사촌교회에 승합차 기증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이 경남 사천에 위치한 사촌교회(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촌리 383)에 승합차를 기증했다. 지난 6월 2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서 차량 기증식이 있었다.

사촌교회는 이종민 목사가 2015년 부임한 이래 5년 동안 성도 5명에서 50명으로 10배 부흥했다. 이종민 목사가 경남 사천시 사남면 일대 13개 마을을 승합차로 매일같이 돌면서 주민들을 전도한 결과다. 그런데 이종민 목사와 사촌교회 성도들의 발이 되어주던 차량이 노후되어 폐차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에서 설날 떡국 판매, 도농브릿지사업(친환경 농산물 위탁판매사업), 나눔장터 수익금, 개인 후원자의 현금 등을 모아 승합차를 기증했다.

이종민 목사(사촌교회)는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이 지원해주신 승합차로 더 열심히 섬기고 전도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는 “사촌교회가 구원의 통로로 쓰일 수 있도록 온누리교회가 함께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 정현주 기자

알려드립니다

7월 1일부터 온누리교회 한식당 석식(저녁) 운영을 중단합니다. 조식과 중식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전문가 기고

“이 정도면 충분해 괜찮아”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슬기로운 가정생활



김숙경 소장
(김숙경사랑연구소,
두란노결혼예비학교
강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서적으로 불안, 우울, 무기력을 호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명 코로나 블루(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나타나는 우울증)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외형적인 삶의 모습을 많이 변화시켰다. 직장, 학교, 교회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지내야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주의하다보니 경계와 두려움이 생겼다. 집 밖에서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지내지만, 집안에서는 부부와 자녀들이 24시간 밀착해서 함께 보내고 있다. 그런데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새로운 스트레스와 갈등이 생겨났다.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가 너무 밀접해져버린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로 가족 간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갈등도 많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시간을 견디는 것이 불안하고 힘겹다. 우리 가족만 봐도 남편은 재택근무를 하고, 나는 강연이 다 취소되면서 5개월 동안 일을 못하고 있다. 큰아들은 대학에 입학했지만 학교에 가보지도 못한 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성 역류식도염에 걸려버렸다. 둘째 아들은 집과 학교에서 수업을 번갈아 받으면서 혼란 속에 지내고 있다. 비단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부부와 가정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예전보다 상담 요청이 더 많아졌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들의 스트레스와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나누고 싶다.

노력, 통제, 요구를 멈추고, 여유 갖고, 감정대화를 하라!

첫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통제, 요구를 멈춰야 한다. 불안하면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다음 스텝을 위해 무엇인가를 더 준비하려고 하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을 많이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그 에너지조차 스트레스가 되고 우리를 지치게 한다. 변화는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로 우리는 이미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전시상황처럼 긴장과 불안이 가득하다. 이럴 때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다. 변화할 수 있는 상황, 미래를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현실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감소시키는 방법

1. 잠시 숨고르기 하며 여유 갖기
2. 가족들과 감정대화 나누기
3. 소소한 일상과 경계를 분명히 하기
4. 정서적 환기와 감사와 격려 나누기

잘하는 것이다.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지나가도 괜찮다. 무엇보다 불안지수가 높아지면 배우자나 자녀들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자녀들도 어른 이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편안하게 지내도록 하는 게 좋다. 필요 이상의 요구가 가족들을 지치게 할 수 있다. 지금은 숨만 쉬어도 되는 여유를 가져보라.

둘째, 가족들과 자주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나눠보기를 권한다. 예를 들어 부부끼리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면 좋다.

“계속 일이 없어서 재정적으로 많이 걱정되고 부담이 되네.”

“그렇지? 걱정되고 부담되지. 나도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많이 우울해.”

“당신도 우울했구나(토닥토닥).”

자녀들과는 이렇게 대화해보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슬프고 힘들어.”

“그래.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니 슬프고 힘들겠다. 엄마도 교회 못가고, 순식구들 만나지 못하니 슬프고 우울해.”

불안, 무기력, 우울, 슬픔의 감정을 대화로 충분히 나누기를 바란다. 지금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기에 감정을 나누어도 된다.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고 괜찮아진다. 충분히 현재의 감정에 대해 나누고 공감해주는 대화를 나누기를 바란다.

셋째, 가족이 함께 보낼 소소한 일상과 경계가 필요한 영역을 분명히 해야 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강연과 상담을 통해 만난 청년들에게 “가족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많은 이들이 “가족과 밥 먹고 싶다”고 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밥 먹을 여유조차 없이 바쁘게 보낸 지난 시간이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19가 그 시간을 주고 있다. 지금 이 시간이 허기진 가족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하루 한 끼 식사가 자녀들에게는 부모와 보내는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삼시 세끼를 다 같이 먹으라는 것은 아니다. 식사 준비와 세끼를 함께 먹는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할 수 있는 만큼의 식사를 하고, 피로감이 쌓였을 때는 가족들이 알아서 편하게 먹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 식사뿐 아니라 가사 일도 가족끼리 분담해서 짐을 나누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서 필요 이상의 피로감을 갖지 않는 것이다. 조금 정리가 안 되어도, 완벽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 충분해. 괜찮아”라고 다독여주면 어떨까.

부부끼리는 부부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부부의 친밀감이 증진되지는 않는다. 짧은 시간이라도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부부만의 데이트를 하기를 권한다. 사람이 많은 곳은 갈 수 없으니 음료를 테이크아웃해서 집 앞 공원이나 산책로를 함께 걸어보라. 한적한 곳에 드라이브 가서 차 안에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다.

한 공간에 가족들이 계속 있거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 답답할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모두 함께 하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자. 공간 또한 자기가 원하는 공간을 사용하도록 배려해주면 더 좋다.

정서적 환기와 감사와 격려 나누기

넷째, 정서적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 계속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와 정보를 접하다 보면 불안하고 우울하다. 이러한 정서를 잠시 환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집안 공기가 안 좋을 때 창문을 열어 환기하듯이 우리의 정서도 환기가 필요하다. 너무 많은 시간을 코로나19와 관련한 뉴스와 정보를 접하지 말고, 정서가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해보기를 추천한다. 예를 들면 성경 읽기, 성경 필사하기, 찬양 듣기, 책 읽기, 일기 쓰기, 산책하기, 기도하기 등 정서가 좋아지는 방법으로 환기해보라. 우리 가족은 하루에 한 번씩 개인적으로 동네 산책을 하고 온다. 산책하면서 집에서 힘들었던 정서를 환기하고 들어온다. 뉴스보다는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틀어놓기도 한다. 우울한 정서에 빠지지 않기 위해 환기를 계속 해주기를 바란다.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회의로 지친 가족들이 오프라인에서 함께 보드게임이나 다양한 놀이를 해보는 것도 좋다. 놀이를 통해 정서적 교감과 재미를 가족이 누리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격려를 나누기를 권한다. 정서적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시심을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인도해주심을 감사하는 것이다.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보라. 또한 가족끼리 격려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격려하면 좋겠다. 지난 5개월을 잘 견뎌온 가족들에게 “잘 견뎌왔어”라고 격려를 나눠보라. 마음과 삶이 힘든 이웃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안부를 물어보면서 격려하면 도리어 나 자신이 격려를 얻게 될 것이다. 나 또한 부부관계와 삶이 힘든 이들이 보내오는 메일에 답장을 해주고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감사가 되었다. 그분들을 격려하면서 나 자신이 격려를 얻었다. 감사와 격려를 적용해 보기를 적극 추천한다.

“하나님, (***)로 인해 감사합니다.”

“여보(혹은 이름), 잘 견뎌왔어. 힘들었을 텐데 잘 감당했어.”

“수고했어, 고마워!”

감사와 격려를 통해 정서적 광야길이 소풍길처럼 되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

온라인 종강예배 간증



/ 이창희 성도(강촌공동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다. 순모임도 주일예배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참여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총무님으로부터 1학기 종강예배를 섬겨 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았다. 나는 늘 그러하듯 흔쾌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매 학기 하던 것처럼 목사님과 공동체 지체들이 보내 주는 자료를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서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리허설 모임에 참가했다가 깜짝 놀랐다. 내 역할이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넘었기 때문이다. 즐거움이 무거움과 두려움으로 변했다. 실시간 방송을 위해서 난생처음 보는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운용하고, 복수의 카메라와 오디오 장치 연결도 체크해야 했다.

목사님은 이런 장치들에 익숙해보였다. 장치를 완벽하게 준비해 오신 목사님과 CGNTV에서 근무하는 공동체 지체의 도움으로 일단 장비세팅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런데 리허설을 할 시간이 거의 없어져버렸다.

뭐가 문제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했다. 이때 내 마음에 위안을 주는 말씀은 오직 하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였다.

종강예배 두 시간 전 처음이자 마지막 리허설을 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에서 카메라로, 카메라에서 동영상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생방송이라 한번 잘못되면 계속 잘못될 수도 있었다. 혹시 몰라 CGNTV 일하는 형제님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들을 이미지 파일로 변환했다. 혹시나 화면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다른 화면에 영향을 안 주도록 하기 위한 대처였다. 그 이미지 파일을 만든 게 종강예배 방송 직전이었다. 공동체 종강예배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 리허설이 되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 현실이 됐다.

방송 내내 CGNTV에서 근무하는 형제님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갔고, 고비마다 목사님의 순발력 있는 멘트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물론 사고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믿는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과 채팅까지 하면서 몸은 다른 장소에 있지만, 모두가 같은 장소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온라인으로 하는 영혼의 만남을 통해 강촌공동체 종강예배가 합력해 선을 이루는 예배가 되었다.

온라인 큐티스쿨 참가자 간증



/ 조수빈 성도(Point5공동체)

도움 청할 곳 없이 홀로 견뎌야했던 외로운 타국생활이 마음의 가난함을 불러일으켰고, 그 갈급함이 스스로 큐티책을 잡게 만들었다. 큐티를 통해 매일의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어느새 큐티가 내 삶의 습관이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단맛과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안 하면 불안하기에 그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큐티를 하곤 했다.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밋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율법적인 생각으로 큐티를 했다.

온라인 큐티스쿨을 수강하게 되었다. 솔직히 큐티를 몇 년을 했는데 뭘 더 배우겠나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내 안에 평안이 점점 사라지고, 말씀과 큐티에 대한 갈증이 커지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혹시나 내가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다급한 마음으로 수강하게 되었다. 기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더욱 은혜로 다가왔던 것 같다. 큐티의 정의를 짚는 첫 번째 시간부터 큐티에 대한 나의 시각을 바꿀 수 있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큐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한 큐티로 바뀌게 되었다.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얼마나 드리고, 주님 말씀에 순

변화된 나의 큐티

종하도록 귀와 마음을 열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내 안의 불안은 분주함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스며들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끊임없이 평안을 추구하며 더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통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뿐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며,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다고 결심했다. 또 말씀과 삶의 일치를 이뤄내는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안식하고 싶어서 의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책을 집어 들기로 결심했다.

아직도 매일의 실천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계속 노력해서 주님 안에서 건강한 습관이 되기를 소망한다. 묵상과 실제의 삶이 동떨어지지 않도록 실제적인 장단기 적용점을 매일 적고, 이를 되돌아보며 실천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의 마음속 힘들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터놓는 솔직한 묵상도 하려고 한다. 하나님께 내 귀와 시선을 두는 매일이 쌓여 내 삶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한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온라인 큐티스쿨 참가자 간증



/ 임수경 자매(여호수아공동체)

큐티하면 정말 행복하다!

나는 큐티(QT)가 굉장히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과 나 단 둘만의 시간이자 비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온라인 큐티스쿨을 수강한 이후 그 생각에 큰 변화가 생겼다. 큐티 내용을 지체들과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각자 묵상한 말씀을 다양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개인의 영적성장과 더불어 말씀공동체가 세워지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다.

큐티나눔을 하면 누군가 나의 묵상내용을 듣고 비판하거나 비웃으면 어쩌나 늘 걱정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타인의 나눔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해주셔서 안심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현명한 조언이자 충고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큐티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린다. 바쁜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매일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도 매일 큐티하는 습관을 들이는 중이다. 길게는 1시간 반, 바쁜 날에는 1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큐티를 하고 있다. 날마다 생명수를 마시

니까 정말 은혜롭고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큐티하면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즘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다. 쉽게 분노하거나 짜증을 내는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온화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변화되고 있다. 성격을 바꾸려고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했더니 내 모습이 변화되었다. 어쩔 수 없이 큐티를 하루 건너뛰는 상황이 생긴다 해도 율법주의로 자책하거나 괴로워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말씀에 자유함이 임했다. 자유함이 생기니 큐티하는 시간이 더욱 즐겁고 기다려진다. 큐티는 나에게 영적 디톡스다.

이제는 큐티하는 시간 외에도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여쭙보게 된다. 그만큼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매일 큐티하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되고 싶다. 큐티는 사명을 이루는 필수 요소다.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한 다니엘처럼 나도 주님 뵈는 그날까지 평생 큐티할 것이다. 큐티하면 정말 행복하다!

NGO 더멋진세상 인도네시아 2차 긴급지원



/ 추주엽 선교사(인도네시아 사역자)

바뚜바닥 마을의 회복을 소망하며

인도네시아 바뚜바닥 마을은 람푹족이 거주하는 무슬림 촌락이다. 980가구에 주민 3,1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그 중에서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과부가 약 170명 정도, 임산부 30여 명, 5세 이하 영유아가 250여 명 정도다.

바뚜바닥 마을 주민들의 직업은 일일노동자가 80% 정도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요 농산물인 옥수수, 카사바, 파파야의 현지 구매가격이 50% 정도 폭락했다. 주민들의 가정 경제에 매우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임산부와 영·유아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 영양공급이 잘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건강한 양육을 제공해야 건강한 신체로 성장할 수 있는데, 가정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균형 잡힌 음식공급보다는 허기를 달랠 정도의 식생활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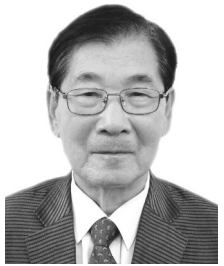
NGO 더멋진세상 인도네시아지부 2차 긴급 지원은 바뚜바닥 마을에서 가장 취약계층인 영유아를 지원하기로 했다. 6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는 예방적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영아들을 위한 목욕세제와 피부 관리용 약품을 공급하고, 영유아들이 세균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데 중점을 두었다. 6개월 미만의 아기들을 위한 목욕세제 및 피부관리 약품은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반응이 매우 좋았다. 2세 이하 유아들에게는 각종 영양을 고루 함유하고 있는 영양제와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영양죽 식재료를 전달하였다. 일반 식사가 가능한 3~5세 아이들을 위해서는 영양제와 영양을 고려한 간식을 준비하였다.

또한 영·유아 엄마들을 위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다. 따라서 여성사역 및 어머니 사역과 연계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바뚜바닥 마을에서의 여성사역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이 변화되면, 가정에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자 역할을 완수하는 동시에 변화의 주체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NGO 더멋진세상 인도네시아 2차 긴급지원을 계기로 바뚜바닥 마을에서 여성과 아동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장로칼럼

성경이 말하는 '변혁적 문화관'

박공 장로
(신용산공동체)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늘 우리 편에 서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 교회가 하는 말이면 무엇이든 옳은 것처럼 세상을 살아간다. 그리스도인들의 바르지 못함을 보려 하지 않는다. 세상 안에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려 하고 있다.

또 어느 한편으로는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갈 때도 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잣대로 신앙과 교회를 판단하기도 한다. 우리는 올바른 문화관을 가지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이 말하는 문화관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화관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야 할까?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

교회가 세상 문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다. 격리적 문화관, 동화적 문화관, 변혁적 문화관이 그것이다.

우선 '격리적 문화관'은 이원론적 세계관과 일관된 견해다. 세상 문화는 세속적이며 죄악된 것이고, 교회 문화만 거룩하고 선하다고 보는 문화관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문화를 배척하고 회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격리적 문화관을 가지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외형적 경건주의에 빠지거나 사회를 등지고 광야

에서 살았던 예세네와 사람들처럼 지나친 금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비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를 주도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계속 만들어 낼 것이다.

'동화적 문화관'은 세상 문화를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는 문화관이다. 동화적 문화관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세상과 격리되지 않은 삶을 살았으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문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동화적 문화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잃어버리게 된다. 종교다원주의나 상황윤리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 사셨지만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셨다(요 17:14).

'변혁적 문화관'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문화와 격리되지도, 동화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문화를 변혁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 견해다. 변혁적 문화관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인해 세상 문화 속에도 선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세상 문화는 타락한 인간의 탐욕과 정욕, 사탄의 영향력으로 인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악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죄악된 세상문화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변혁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고립되어서도, 세상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 올바른 문화관을 가지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그 변화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권사칼럼

나의 아주 좋은 영적습관

이지숙 권사
(양천공동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시 17:15).

내게는 아주 좋은 영적습관이 하나 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며 좌절을 수 없이 만났었다. 이제 끝이다 생각될 때도 너무 많이 있었다. 그때마다 낙망하는 대신,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대신 나는 골방으로 달려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곳에서 나는 야곱이 압목강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은 것처럼, 해답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았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면 신기하게 불가능했던 문제들이 주님의 때에 맞춰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아름답게 회복되었다.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의 문제도, 의학으로는 안 된다는 나의 질병도, 불가능하다는 어머니의 치매도 하나님께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었다. 그러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나중에는 문제는 간 곳 없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곤 했다. 그때 성령의 임재 안에서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눈 녹듯이 해결되어 있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습관은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코로나19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회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교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고, 말씀보고, 기도를

시작했다. 나도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아주 많아졌다. 그동안 바쁜 일과로 소홀했던 성경책과 골방이 요즘 빛을 보게 되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날마다 일상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평범한 일들이 쌓여 믿음의 저수지를 이루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기도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경이롭다.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간다. 순간순간 나는 믿음으로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심을 믿고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하던 기계적인 종교생활이 코로나19를 통하여 다시 주님의 열심과 열정으로 전환이 되어간다. 정말 감사하다.

요즘 나는 한가한 시간이 한 두 시간 생기면 주님과 함께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 안방 구석에 놓인 일인용 자그마한 소파에 앉아 구수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시간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본다. 잠시 하늘의 흘러가는 구름들을 바라보기도하고, 창문을 활짝 열고 방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눈을 감고 정겹게 느껴본다.

큐티(QT) 책을 펴놓고 앉아 아무 걱정 없이, 어떤 압박도 없이, 눈을 감고 내면의 주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가만히 주님을 부르거나 조용히 찬양을 한다. 그러면 잠시 후에 나의 내면이 평안하고 기쁨이 임한다. 눈을 가만히 감고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정말 좋고 행복하다. 나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훨씬 더 좋아하시고, 훨씬 더 기뻐하시는 것 같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게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신앙에세이

노치형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책 <주님과 함께 하는 나의 하루>(두란노)에서 "적당한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라는 하용조 목사의 고백을 인용한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19라는 온 인류에게 다가온 재난을 '결정적인 위기'로 직면하고 있고, 뚫고 나가며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재난이라는 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2020년 2월 말 온누리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회들

이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 예배를 멈추게 되었다. 온누리교회와 많은 교회들은 영상예배로 전환해서 안전한 예배를 선택하게 되었으며, 신앙성장과 성숙을 돕는 영상물들을 제작하고 보급해야 하는 새로운 목회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

나는 '믿음의 날개 시리즈'라는 타이틀로 3~5분 길이의 영상을 제작해서 강동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마주하게 된 절벽과 같은 현실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날개'가 있음을 믿으며, 어떻게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인가를 나누고자 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날개를 바르게 사용하여 날아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그리스도인의 현상과 상황이라는 '의심의 올가미'에 믿음의 날개가 얽매어있기 때

문이다. 둘째, 의심의 올가미에 걸려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버려 믿음의 날개가 아닌 의심의 철학과 과학을 기반으로 한 합리화를 생활화하여 '의심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려는 잘못된 결심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분별하지 못하는 의심의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삶에 만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생활의 모든 선택에서 익숙해진 의심의 날개를 접고, 생각과 언어생활을 사로잡고 있는 의심의 올가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심 0%, 믿음 100%의 절대 믿음의 선물을 사용해야 한다. 믿음의 날갯짓을 회복하고 훈련하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며 고백하는 것이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인임"을 진실하게 자수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

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날마다 전진하는 것이다.

둘째,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의 날갯짓을 시도하며 연습하고 훈련함으로 어렵고 어두운 현실과 상황의 절벽을 향해 달려가 '믿음의 점프'를 시도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베드로, 요한, 바울 등이 절벽과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점프를 시도했다는 것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셋째, 믿음의 점프를 통해 창공을 향해 날아올랐다면 기류를 타고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믿음의 흐름'을 타고 멀리 높이 날아오르는 삶을 누려야 한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다.

<노 목사의 '믿음의 날개': 강동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구유에 누우신 하늘의 왕

양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털이 촘촘해서 목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털을 깎는 것이 곧 목욕입니다. 그런 양들과 함께 뒹굴며 살아가니 그들의 몸에는 늘 냄새가 나고, 사람들은 그 악취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성읍 밖 들판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배를 가장 먼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이든지 누구에게 먼저 전해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건일수록 지도자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뉴스가 가장 중요하지 않고, 가장 긴급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산헤드린 공회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에게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치체계를 뒤집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때 경배했던 두 부류의 사람이 사복음서에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고 징조를 연구하는 지위가 높은 고위 관리들입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경배하러 왔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집에 계시실 때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의 경배를 먼저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어떤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목자들처럼 빨리 달려가서 주님 앞에 무

릎을 꿇고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까?” (15~16절).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이 과연 정말 일어났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이 목자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과연 그러한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거룩한 질문을 가지고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목자들처럼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 이 땅에 있어야 할 평화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 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전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10~14절).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과 이 땅에 있어야 할 평화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인간의 죄가 파괴했고, 가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 땅에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평화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존엄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스스로 아우구스투스가 되려는 것은 헛된 욕망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지배를 통한, 군림을 통한, 무력을 통한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하늘의 왕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겸손한 모습,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세상의 가치를 뒤집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에서 눈을 떼 때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높으신 왕이 가장 섬기는 종이 되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이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힘 있는 자가 군림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우신 것입니다. 하늘의 왕이 구유에 누우심으로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합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한반도에 참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참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꼭 한번 봐야 할 기독교 영화

아버지와 나 그리고 “아이 캔 온리 이매진”



영화 <아이 캔 온리 이매진>은 삶과 신앙과의 괴리, 그 괴리가 시작된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그린 영화이다. 미국 CCM 밴드 머시미의 명곡 ‘아이 캔 온리 이매진’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다.

아이 캔 온리 이매진은 1999년 발표된 이

후 2003~2004년 빌보드 어덜트 컨템포러리 차트 5위를 기록했고, 근래에도 2017년 빌보드 CCM 디지털 음원 판매 1위, 2018년 빌보드 차트 CCM 음원 1위를 기록하며 20년 동안 무수한 사랑을 받은 명곡이다. 국내에서는 CCM가수 김명선이 “그저 상상할 뿐이지”라는 곡으로 소개했다.

가정폭력 일상은 아빠와 꿈을 잃은 아들

이 영화 주인공은 CCM 밴드 머시미 리드 보컬 밀라드다. 관창은 실력으로 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이 써 내려가는 찬양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음반 프로듀서들도 밀라드의 곡은 일류가 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그 원인은 단절된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기인하고 있었다. 삶과 신앙의 괴리가 비단 밀라드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비슷한 경험을 한 크리스천들이 상당할 것이다. 삶과 신앙의 불일치에서 오는 고민,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나 가족 관계로부터 오는 고민은 누구나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밀라드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다. 그의 어머니도 남편의 폭력을 못 이겨 가족을 떠났다. 밀라드를 위로하는 것은 오직 음악이었다. 엄마를 빼앗아간 아버지는 밀라드의 꿈마저 빼앗아 갔다. 아버지의 결정이 곧 밀라드의 진로였고, 불행한 사고들로 그마저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아버지의 강압으로 미식축구를 하다 사고를 당한 밀라드는 교회합창단 활동을 한다. 뮤지션이라는 꿈이 생겼지만 아버지가 반대하자 밀라드는 집을 나온다.

아버지와의 극적인 관계회복

자신의 음악적 한계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한 밀라드는 아버지를 다시 찾아간다. 수년 만에 만난 아버지는 더 이상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었다. 밀라드가 상상하고 바라던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 변해있었다. 밀라드가 집을 나온 이후 크리스천이 된 밀라드의 아버지는 매일 밀라드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

고 있었다.

밀라드는 변해버린 아버지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응어리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아버지를 떠나려던 밀라드는 아버지가 체장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극적으로 회복된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아버지와 다신 없을 시간을 보낸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밀라드가 그 자리에서 쓴 곡이 바로 아이 캔 온리 이매진이다.

I can only imagine(난 그저 상상할 수밖에) *What it will be like*(어떨 것인지)

when I walk by your side(내가 예수님 곁에서 걸을 때를) *I can only imagine*(난 그저 상상할 수밖에)

What my eyes will see(내 눈이 무엇을 볼 건지) *when your face is before me*(주님 얼굴이 내 앞에 있을 때)

I can only imagine(난 그저 상상할 수밖에) 이 아름다운 찬양과 밀라드의 일생이 전해주는 감동을 영화로 만나 볼 수 있다. 지금 전국 극장가에서 상영 중이다.

/ 김영선 기자

김영길 장로 1주기 추모다큐

그의 제자, 김영길

방송시간

6. 28. (일) AM 10:30

6. 30. (화) PM 22:30

故 김영길 장로 1주기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사람을 세운 교육자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준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
김영길 장로를 기억합니다



[YouTube](#) 그의 제자, 김영길 [검색](#)

<그의 제자, 김영길>은 CGNTV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